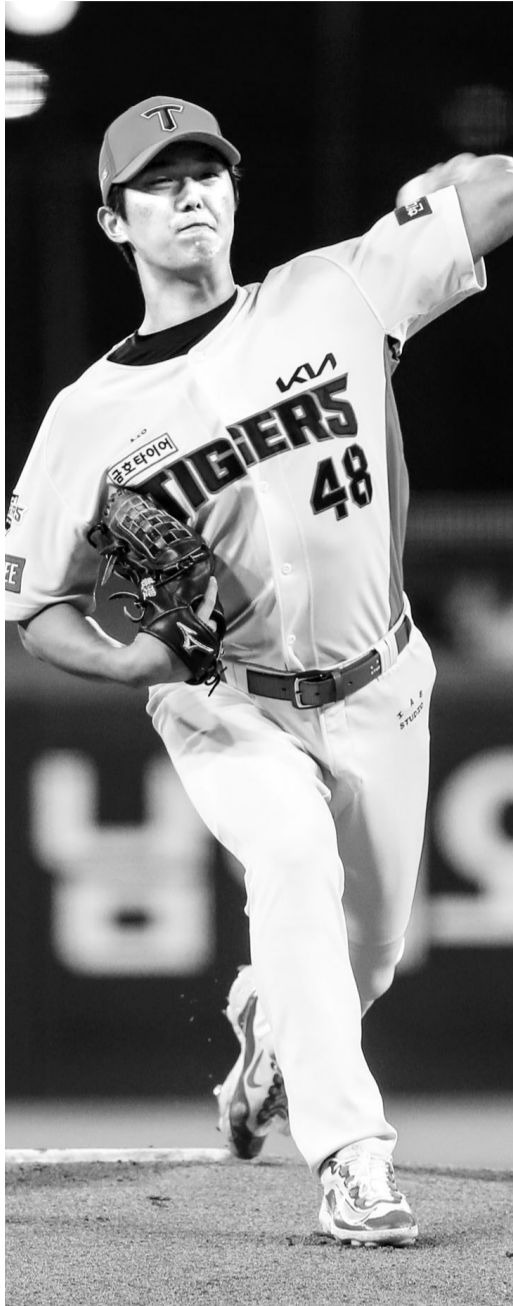


# APBC 대표 발탁 이의리 “태극마크는 자랑스러운 일”



이의리

##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 엔트리 확정

항저우 ‘황당 탈락’ 딛고 각오 다져 KIA 최지민·정해영·김도영도 뽑혀 11월 16일 개막…호주와 첫 경기



아시아게임대표팀 ‘황당 탈락’을 경험한 KIA 타이거즈 투수 이의리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류중일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이의리는 “태극마크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발탁 소감을 밝혔다.

KBO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참가국 감독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회에 참가할 대표팀 엔트리 26명의 이름을 발표했다.

한국, 일본, 대만, 호주 4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단 3년차 이내(2021년 이후 입단) 선수들로 치러지며 와일드 카드로 29세 이하(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 3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선발한 명단에는 좌완 이의리·최지민, 우완 정해영, 내야수 김도영 등 총 4명의 KIA 선수가 포함됐다.

이들 외에 정우영(LG) 박영현(KT) 원태인(삼성) 최준용(롯데) 박민(두산) 문동주(한화) 오원석(SSG) 김영규(NC) 최승용(두산·이상 투수), 김동현(키움) 김형준(NC), 손성빈(롯데·이상 포수), 김혜성(키움) 김휘집(키움) 문보경(LG) 김주원(NC)노시환(한화·이상 내야수), 최지훈



최지민

(SSG) 강백호(KT) 김성운(삼성) 윤동희(롯데) 박승규(상무) 등 26명으로 대표팀이 꾸려졌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이름은 이의리다. 이의리는 지난 9월 아시아게임 대표팀 소집 전 날 엔트리에서 탈락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물집으로 한 번 쉬었던 이의리는 9월 21일 한화전을 통해 마운드로 복귀했지만 조계현 KBO 전력 강화위원장과 류중일 아시아게임대표팀 감독은 ‘물집’을 핑계 삼아 ‘물집 부상 여파로 80구 투구가 어려울 것’이라며 유례 없는 엔트리 교체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의리는 탈락 후 첫 등판이었던 9월 27일 NC전에서 77구로 7이닝 무실점 호투를 기록했고, 10월 9일 삼성전에서는 115구의 역투를 선보이면서 기준 없는 엔트리 교체가 도마 위에 올랐



정해영

다. 우여곡절 아시아게임 금메달을 차지한 류중일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사령탑을 맡았다. 앞선 논란이 가라앉기 전에 이의리가 명단에 포함되면서 다시 한번 이의리가 뜨거운 이름이 됐다.

금메달과 병역혜택이라는 특별한 혜택이 있던 앞선 아시아게임과 달리 이번 APBC는 ‘잘해야 본전’인 대회. 또 시즌이 끝난 뒤 치러지는 만큼 몸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여러 논란에도 이의리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의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뛰는 자세로 의미있다.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태극마크를 달고 뛰겠다”며 “좋은 선수들



김도영

과 좋은 경기를 하고 싶다.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들은 11월 5일 소집돼 대구에서 대회 준비에 나선다.

대표팀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훈련과 연습경기를 진행한 뒤, 14일 일본으로 출국한다.

11월 16일 호주와 대회 첫 경기를 치르는 한국은 17일 일본, 18일 대만을 상대한다. 1·2위에 오르면 19일 오후 6시 결승전을 치른다. 3·4위전은 같은 날 오전 11시 진행된다.

한편 포스트시즌 일정에 따라 최종 엔트리에 변화가 있는 만큼 KBO는 이날 20명의 예비 엔트리도 발표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전국체전에서 금 2개와 동 1개를 획득한 광주소프트테니스 선수단이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소프트테니스협회 제공>

## 전국체전서 빛난 광주 소프트테니스

### 동신고·서진고 금 2·동 1 수확

광주 소프트테니스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광주소프트테니스협회는 지난 14~18일 순천팔마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전 소프트테니스 종목에서 협회 선수들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장채수·문지혁·홍상현·박재민·김도휘·배무진·김승진으로 구성된 동신고 소프트테니스팀은 13년 만에 남자18세이하부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동신고는 16강전에서 경북 문경공고를 3-2로, 8강전에서 인천고를 3-0으로, 준결승전에서 경기선발팀을 3-2로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동신고는 결승전에서 순천매산고를 만나 1경기 복식을 4-2로 이기고 기선을 잡았으나 2경기 단식

(2-4 패)와 3경기 복식(2-4 패)을 내리 내주며 매치 스코어 1-2로 끌려갔다.

4경기 단식에서 4-3으로 이겨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동신고는 5경기 복식에서 치열한 승부 끝에 4-3으로 물리치며 매치 스코어 3-2로 재역전을 거듭했다.

동신고 문지혁과 홍상현은 남자18세이하부 개인복식 준결승에서 경북의 임현우-전중혁 조에 1-4로 져 동메달을 추가했다.

서진여고 김세나는 여자18세이하부 개인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내 창단 2년 만에 첫 전국체전 금메달을 팀에 안겼다.

또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김세나는 8강전에서 이면서(강원전산정보고)를 4-2로, 준결승서 이한결(대전여고)을 4-3으로 차례로 꺾고 결승에 올라 경북대표 황정미를 4-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FC 이건희·이준·김승우 ‘베스트 11’ 선정

1위 울산현대를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기록한 광주FC의 이건희·이준·김승우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4일 하나원큐 K리그1 2023 34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울산현대를 상대로 결승골을 터트린 이건희와 철벽 수비로 골대를 지킨 이준 그리고 ‘잇몸 축구’의 힘을 보여준 김승우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는 지난 2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파이널라운드 첫 승부에서 후반 42분 터진 이건희의 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이날 후반 13분 교체 투입된 이건희는 후반 막



이건희(왼쪽부터), 김승우, 이준.

판 이희균의 패스를 골로 연결하면서 ‘극장골 전문’ 선수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울산 골키퍼 조현우와 선방 대결을 펼쳤던 이준은 후반 5분의 추가시간까지 완벽하게 막으면서 무실점 승리를 완성했다.

## ‘당구 여제’ 김가영 6승째…스롱과 어깨 나란히

‘당구 여제’ 김가영(하나카드·사진)이 프로당구 통산 6번째 정상에 정복했다.

김가영은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당구 PBA-LPBA 2023-2024시즌 5차 투어 ‘휴온스 LPBA 챔피언십’ 결승에서 김상아를 세트 점수 4-1(11-4 10-11 11-4 11-4 11-3)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LPBA 데뷔 4년 만에 6회 우승을 달성한 김가영은 스롱 피아비(캄보디아·블루원리조트)가 보유했던 LPBA 최다 우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또한 이번 대회 우승 상금 3천만원을 추가해 누적 상금 2억6천640으로 상금 랭킹 1위 자리도 지켰다.

경기 후 김가영은 “우승은 늘 좋다”면서도 “이번 대회는 우승했음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부족한 점이 드러난 거 같아서 부끄럽다”고 반성했다.

또한 “몇 번 우승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공에 대한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돌아봤다.

이날 김가영은 고비마다 감각적인 뱅크샷을 터트리며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김승우는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아론과 안영규가 빼졌던 이날 탄탄한 수비로 울산의 발을 묶으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한편 34라운드 MVP는 제주유나이티드의 김건웅에게 돌아갔다.

김건웅은 수원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터트리면서 제주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이 승리로 제주는 최근 4연패를 끊어내고 8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했다. 정조국 감독대행의 부임 후 첫 승이기도 하다.

베스트 팀으로 FC서울이 선정됐다. 서울은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나상호와 지동원의 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베스트 매치는 2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펼쳐진 대구FC와 전북현대의 경기다. 전북 한교원 과 대구 에드가의 골로 1-1로 맞선 후반 45분, 구스타보의 극적인 결승골이 나오면서 전북이 2-1 승리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시수
- 2관 웅감한 시민
- 3관 웅감한 시민, 엑소시스트: 믿는 자
- 4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5관 30일
- 6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9관 30일, 유엔미앤미
- 7관 싸네커피들 화란, 더 년 2
- 8관 싸네커피들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엑소시스트: 믿는 자, 시수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상설공연**

2023년 광주상설공연(10월)

일시 : 2023-10-01(일) ~ 2023-10-29(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포커스 민아\*슬기 Quintet 재즈 콘서트**

일시 : 2023-11-17(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